**우리가 누구인가?**

저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며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같이 AI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연구원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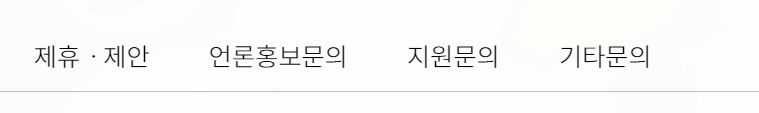
이렇게 소개하는거 어때?.. 의견 부탁해요!!

**우선 우리가 컨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인데**

1. ‘우아한 형제들 홈페이지’ 내 문의하기
2. ‘배민 Tech 블로그’ 내 문의하기

이렇게 있어!

1번 에서는



이렇게 있는 데 여기서는

* 제안문의
* 지원문의
* 기타문의

총 세가지를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

문의 카테고리에 따라 글을 조금씩 다르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

특히 지원문의에는 우리가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좀 더 자세히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외부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상적이라 생각하거든 그래서 생각해 낸게 바로, 지원문의에서는 프로젝트 인턴을 요구하면 어떨까?야..

[요구하고자 하는 것 구체화]

1. 받고자 하는 데이터 설명

(우리가 받지 못하더라도 PPT에 적어둔 데이터를 근거있는 내용으로 명확하게 풀어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

-받고자 하는 데이터 (형태)

-받아야 하는 이유

2. 원하는 요구 형태 (인턴)

(프로젝트 인턴으로 진행하면 최소2개월부터 ~ 최대6개월 등. 어떠한 식 (미팅제안) 으로 인턴을 진행하고 싶은지.. 배민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해야할 것 같아!!)

또, 2번째 방법에서**Tech블로그작성** 에서도 제안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문의하는 것은 기획자가 아닌 개발자가 보고 심의하는 부분이다 보니 감성적이나 사업적으로 어필하는 것 보다 알고리즘 또는 데이터로 어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생각했어.

성호가 대체적인 알고리즘과 데이터의 내용을 기반으로 초안을 작성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시펑!!

**[PPT]**

PPT 마지막 부분에 ‘배민에게 원하는 것’이라는 목차를 따로 만들어서 마무리 지을까 하는 고민도 드는데 어때??

우리가 확실하게 추천시스템이 필요한 이유와

어떻게 만들지는 제안서에서 충분히 어필이되는데..

어떤데이터를 받는지 또는

어떤형태로 배민과 함께할지

(짧게는 2개월에서 6개월 프로젝트 인턴 제안) 등 우리가 배민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마지막 부분에 따로 목록을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떤가 해서 !

피피티를 넣게된다면

배민의 배신감?!

배민의 슬로건

이 부분처럼 파랑 바탕에 흰 글씨로

'우리는 배민에게 원한다'

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한 목차를 만들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을 써볼까 하는데. 이건 호준이가 어떤지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정리하자면

지원하기, 제안하기, 기타문의 -> 아리, 차헌, 승희

PPT마지막 수정 -> 호준, 아리

Tech blog 문의 -> 성호, 호준

이렇게 나눠서 일차적으로 진행한 뒤에 최종으로 보낼 내용들을 내일 오전에 보내면 어떨까 생각했어! 사실 오늘 저녁에 보내도 괜찮을 것 같고,,

<제안 문의>

인사

자기소개

개인화 추천시스템을 연구하고 그것을 배민에 서비스화 하고 싶은 이유 (배민인 이유)

그래서 필요한 것

제안서에 대한 얘기 (어떤 식의 내용이 있다.)

감사인사.

얘들아 화이팅!!!

차헌이두화이팅 !!!!!!